

Binchae

MAGAZINE

빈손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집니다
Fill Empty Hands, Fill Empty Hearts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한다.
- 최인호 <인연>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관계 속에
모든 인연이 소중하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 중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빈손을 채우는 인연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빈손에서 시작되는 기적
나눔의 손길로 세상을 바꾸다

Hope in Empty Hands
Building Futures, One Hand at a Time

발행인_ 송동호

발행일_ 2025년 1월 13일

발행처_ 빈손채움

기획, 편집, 디자인_ 빈손채움

사진_ 송동호, 채종욱, 빈손채움

문의_ 빈손채움 02-2135-6765

Contents

WELCOME	6
EVENT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개최	8
SPECIAL PHOTO	
빈손을 채우며 함께한 10년의 기록	12
SPECIAL STORY	
채종욱 이사장님 80년 선교 사역 이야기	16
STORY 1	
오주마늘에 세워진 Water Tank	18
STORY 2	
몽골 숙박탈, 인도하신 그곳으로	22
STORY 3	
한 움큼으로 전하는 사랑의 온기	26
후원 안내	30



해 저무는 시간의 묵상

글. 송동호 대표

새해 들어 첫 석양을 마주했다. 지난 연말 독감을 세계 앓고 난 뒤에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도 하고 마침 일정이 없는 주말이라 집에서 쉬면서 몸을 챙기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서서 베란다 창문 너머 저무는 해를 보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 뒤쪽은 동쪽이라 아침 해 뜰 때마다 보게 되고, 또 산과 아름다운 숲이 있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산책하는 지역이라 아주 친밀하고 익숙하다. 그러나 베란다 쪽 전면 뷰는 빼곡한 아파트 콘크리트 숲이어서 내심 그리 좋아하지도 않지만, 서쪽이기도 하고 늘 커튼이 드리워져 있거나, 해질녘에 집에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내겐 그리 익숙하지 않다.

이사 온 후에 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석양을 마주한 건 처음인가 싶다. 거친 듯 내려앉는 짙은 어둠과 해질녘에 더욱 불타는 태양이 하늘 구름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노을은 언제 봐도 환상적이다. 오늘 보고 있는 노을은 해질녘 지구별의 그 어떤 곳에서도 보여주신 적 없는, 단 하나 유일하고 유니크한 그분의 작품이 아닌가. 창조 이후에 결코 지금껏 단 한번도 같은 패턴의 노을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테니 말이다. 생각할수록 몽클하다.

오늘 석양도 참 아름다웠다. 그 태양의 남은 힘과 열정인 붉은 색마저 점점 흩어지고 열여져 갈 때면, 잠시라도 더 멈추어 내 관조의 즐거움이 되어 주길 바라지만 아쉬운 만큼이나 더 짧고 급하게 태양은 저문다. 내 아쉬운들 뉘저를 붙들어 세우겠는가. 석양은 찬란히 피었다 저물어 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아쉽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걸까.

사진 대가들은 사진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색을 빼보라 권한다. 그래야만 사진의 본연의 메시지에 오롯이 닿을 수 있다고. 색도 메시지의 매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화려한 색이 도리어 메시지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진 전시회에 주로 흑백사진이 걸린 이유일게다.

석양의 붉고 화려한 색들이 모두 제거되어 갈수록 그 끝에 고요히 드리우는 저녁은 블루다. 노을의 블루는 삶에 신비를 더하며 안식의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아, 내 삶의 모든 오욕의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내게 남겨진 아쉬움의 편린들조차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주권 아래 굴복하는 그 낮과 밤의 경계에서 만나는 블루.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이 가르치시는 빈손채움의 의미일까.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욕심을 비워낼 때, 우리 삶에 당신이 채우실 충만을 기대한다.

이젠 석양의 레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드리우는 노을의 블루가 더 기다려질 듯하다. 오늘따라 창문 너머 해질녘 풍경이 신비롭다.

EVENT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개최

빈손채움은 2014년 9월 12일 설립 이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후원과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후원자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날을 축하하며 지난 10월 15일 빈손채움 본부에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빈손채움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설립 이후 10년이란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한 기쁨의 여정을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 서울 홍대에 위치한 빈손채움 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역 스케줄을 위해 채종욱 이사장님과 미주 빈손채움 박동희 대표님은 행사 이전에 일찍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시자마자 바로 사역 스케줄을 소화하셨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주 마을과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물탱크 개설과 전자도서관 설립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빡빡한 스케줄 덕분에 중간에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셨지만 행사를 위해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많은 후원자 분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떡을 떼고 감사를 나누는 기쁨

먼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케이터링 서비스로 섬겨 주신 후원자분의 사랑으로 풍성한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소식을 전하느라 끊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 웃음이 넘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는 본부 사무실 지하 1층에 위치한 텐트메이커 예배실에서 남궁현 부이사장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미주 빈손채움 이사님이신 황주 목사님께서 먼 미국 땅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황주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시작된 행사는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채종욱 이사장님과의 지나온 인연을 나누고 빈손채움과 함께한 밀알복지재단의 여정을 복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빈손채움의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이 영상은 채종욱 이사장님이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도 직접 시간을 내어 만든 영상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이 영상은 Special Story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이 끝나고 채종욱 이사장님은 10년의 연혁을 나누며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하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 열매라며 빈손을 채우던 현장에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만, 아버지의 영광만 남길 바란다는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전세광고회 심상근 장로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심상근 장로님은 “빈손채움이 시작되면서부터 채종욱 이사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채종욱 이사장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며 단 한 번도 사역의 모든 여정 가운데 충성되게 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빈손채움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종욱 이사장님의 향유욕함이 깨지는 순간들을 함께 묵도할 때마다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손채움을 위한 가곡을 한 소절 부르시며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새해를 꿈꾸며

빈손채움의 1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송시는 플루티스트의 <은혜> 연주가 예배실을 가득 채우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열화와 같은 박수와 더불어 송동호 대표의 마지막 감사 인사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10년이란 여정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라며 “주님의 은혜로 이뤘던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거룩의 새 옷을 입고 다시 도약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정길 목사님의 축도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방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빈손을 채우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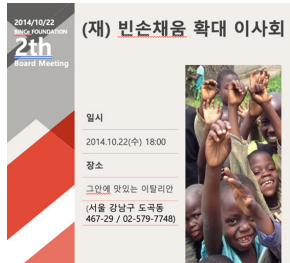
빈손을 채우며 함께한 10년의 기록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한 10년,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2014년 6월 25일 빈손채움 설립.

창립이사회 개최,
국제구호 비영리법인 등록(외교부)

2014년 10월 창립 확대 이사회 개최



2015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

2015년 12월 GBM Networks Asia 인도

비하르 공장 준공



2016년 인도(11개 마을 학교 및 고아원) 급식 시작



2017년 케냐(밀알 선교 케냐지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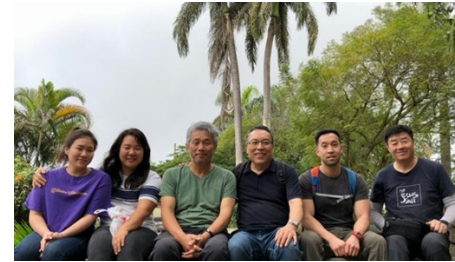
-키수무 장애인 가족, 고로고초 슬럼가 장애인,
해피라이프 고아원



2018년 7월 인도 강하라 마을 학교 보수 공사



2018년 10월 아이티(뉴욕 YM Cornerstone
협력) 슬럼가 고아원 급식



2018년 11월 네팔 기아대책과 MOU 체결



2019년 1월 차드 미구엘 마을개발사업 시작

(5년 계획) GHNI MOU 체결



2019년 10월 GILPP Korea 국제컨퍼런스
(빈손채움 주최)



2020년 5월 COVID 뉴욕 경찰 마스크 제공



2022년 7월 나이지리아 오주 마을 개발 시작



2022년 10월 코트디부아르/베닌 마을 개발



2023년 10월 빈손채움 이사 선교지 방문
(인도, 네팔)



2024년 1월 공익센터와 분리,
새로운 단체로 등록
장소 이전 나무미션 사무실 공유
대표 송동호 / 이사장 채종욱
이사 남궁현, 민석기, 김해영



2024년 3월
Joy Systems와 E-Library&Learning
Center 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
현재까지 선교지 Learning Center 현황:
태국, 아이티, 도미니카,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미국(인디언),
에티오피아 등 700여 대 제공



2024년 9월 선교지 의료약품 지원 사역
(2023년부터 MOM선교회와 Collaboration)



2024년 3~10월 오주마을 우물 프로젝트



2024년 10월
뉴질랜드 Fellowship Church 빈손채움 홍보 행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지역 교회 전자도서관, 여성 직업훈련센터 방문



2024년 11월
몽골 전자도서관 설립, BAM 기업과 미팅



80년 여정을 돌아보며

지난 80년 생애를 돌아보며 한 가스펠이 떠올랐습니다.
이 곡이 마치 지난 세월을 향한 나의 고백 같아
감사와 기쁨을 담은 그 여정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글. 채종욱 이사장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80년이란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기뻐했던 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주님 볼 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한 가스펠이 떠올랐습니다. 이 곡이 마치 나의 고백 같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지면에 담은 순 없지만 가사의 일부를 나의 간증으로 옮겨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모든 날들이 당신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내 모든 인생에서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나를 불 가운데서 인도하신 주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자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설픔게 만든 제 동영상과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상은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 결혼 후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 55년 전 만난 두 사람이 어느새 4명의 손주를 포함해 12명의 가족이 된 모습을 담았습니다. 느지막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프리카, 인도 등 여러 빈국의 어려운 마을을 방문해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빈손을 채우는 사진들, 마지막 장면은 아내와 손잡고 남은 여정을 등지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마치 내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부족한 발걸음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길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감동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론 지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가던 길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부르셔서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것은 한량없으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이 여정을 한발 한발 주님과 걸어봅니다.

채종욱 이사장의 영상 <80년 여정을 돌아보며>



오주마을에 세워진 Water Tank

오주마을 주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바로 40년 만에 얻은 깨끗한 지하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마을까지 가는 길이 고된 여정이지만,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있으니
마음에도 다시 생명이 움튼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글. 채종욱 이사장

40년 만에 얻은 깨끗한 지하수

오주 마을은 이전에 강물에서 끌어온 물을 필터에서 공급하는 물탱크가 있었지만 정부기관의 관리 소홀로 방치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식수를 20L에 50나이라도 구입하여 먹었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했고 보통 3~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빈손채움의 프로젝트로 착공한 것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이곳 7개 마을 사람들(약 15,000명)은 8m 높이 탱크에서 파이프를 연결되어 마을 세 곳의 샘터에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탱크물은 태양열 시스템으로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물을 얻게 되어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수고스럽게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하 170m 깊이를 파서 얻은 물은 지표수와 달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라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식수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 지방 정부, 부족 대표,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생명의 근원인 생수를 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수도 오부자에서 11시간을 찾길로 가야 했는데, 그중 7시간의 구간은 야생말을 타는 로데오 경기같이 도로 사정이 최악이었습니다. 주 도로는 두 부족 간의 싸움으로 길을 막아서 험한 길을 둘러 가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길을 가면서 “다시는 이곳을 오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곳에 도착해서 터져 나온 생수로 기뻐하며 뜨겁게 환영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또 와야지. 이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시추의 실패로 인해 비용도 들고 힘도 들었지만 고난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제게 마을 전통 모자와 머플러 그리고 염소 한 마리와 양 한 트레일러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염소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우리 팀들이 아부자로 가져와서 다음날 주일 바비큐를 해서 온 교회가 예배 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동물과 농산품을 주는데, 보통은 닭 한 마리 정도인데 염소는 최고의 감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세계가 열린 전자 도서관

지난 3월에 세워진 전자 도서관과 러닝센터는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들이 나와서 각각 자신들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자 도서관을 통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빈손채움에서 캠페인 하고 있는 전자 도서관 러닝센터는 세계 각 선교지에서 쇄도하는 요청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2곳),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에콰도르(2곳), 태국, 미국(인디언 마을), 유크레인, 타지키스탄 등 이외 많은 예정지에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자 도서관의 효과는 폭발적으로 선교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골 마을에 세워지는 컴퓨터 교실은 특권에서 제외된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사역이 복음의 대로를 여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몽골 숙박탈, 인도하신 그곳으로

빈손채움은 지난 10월,
몽골 숙박탈과 울란바토르에 전자도서관 설립과
BAM기업과의 미팅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눈 폭풍으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곳에서의 만남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글. 채종욱 이사장

개혁의 물결, 몽골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정치적 개혁과 도시 개발로 급속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청년들이며 3백70만의 인구의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 향후 3-5년 내 모든 구간을 20분 내로 단축하는 도로 확장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 마다 한국형 마트, 드라마, 음식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K-문화의 저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숙박탈에 세워진

전자 도서관 & 교육센터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350km 떨어진 숙박탈은 셀렝게(Selenge)주의 주도이며 인구 약 6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투즈(Tuj Develop Center)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리(Ari)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 전자 도서관과 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0대의 크롬북과 서버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리 목사님은 GHNI 마을개발의 몽골 책임자로서 교회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이곳의 많은 젊은이들이 컴퓨터 학습으로 사회 진출의 기회를 얻고 낙후된 시골 교육의 수준에서 한층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겔 초대와 눈 폭풍을 만나다

숙바탈 외각에 거주하는 겔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들의 삶은 넓은 평원에서 말과 염소를 키우면서 초원을 쫓아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자리에 정착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도 사용하고 TV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겔 주인은 이곳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와 술을 대접하고 고깃국물에 삶은 국수도 대접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방문은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숙바탈에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눈 폭풍으로 인해 10시간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떠날 때 좋았던 날씨가 눈 폭풍으로 인해 도로면은 얼음장으로 변했고 눈보라가 차 앞을 가려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이미 도로를 벗어나 나뒹굴어져 있었고 중도에 2시간을 차 안에서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동역자들의 기도망을 통해 기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차가 움직일 때 기도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EDEN 기업 방문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에덴(EDEN) 식품 설립자인 Hurlee 씨는 2006년에 잼과 주스를 만드는 가공 공장으로 시작해 교회와 종업원들을 돕는, BAM 기업으로서 지금은 몽골 제 1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Hurlee 씨는 초기에 일반 투자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Ibex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전문 컨설팅과 중보 기도의 협력에 힘입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bex는 개발도상국에 사업하고 있는 BAM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는 BAM 공동체입니다. 이 단체는 투자와 함께 전문 컨설팅과 중보 기도로 도우면서 건강한 기업 환경이 되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에덴 회사는 6번의 재투자를 받으면서 상환 날짜를 앞당겨 지키는 모범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라는 이익보다 남의 유익에 우선권을 두면서도 정직하게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내 몽고 형제들과 함께 예배

이번 여정에 꼬박 48시간을 달려와서 만난 내몽고(Inner Mongolia) 형제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는 우리가 48시간을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사진은 보안 관계로 생략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땅끝’이 어디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움큼으로 전하는 사랑의 온기

지난 7월, 인도 비하르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빈손채움이 영양 파우더 공급을 통해

식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빈손채움은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인도 영양 파우더 공급 지역

	지역 및 학교명	배분 수량(박스)
1	SEIS학교	150
2	친베리아 학교	200
3	마나스 마을	50
4	살할리 마을	50
5	강하라 마을	50
6	라니폴 마을	50
7	빨리간지 천사의 집	50
8	아킬폴 천사의 집	50
9	람다스축 마을	50
10	북비하르 홍수 피해 지역	1,800

인도는 7월부터 우기철이 시작되는데 지역 특성상 홍수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올해는 북부 비하르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비하르 지역은 빈손채움이 식량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부 비하르의 여러 마을에 긴급 구호 요청에 따라 본부와 미주 본채에서 보내 주신 재정으로 영양 파우더를 생산하여 재난 지역 마을에 긴급 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한국 빈손채움에서 보내주신 후원금 USD 6,000와 7월 19일에 미주 빈손채움에서 보내주신 후원금 USD 6,000, 8월 26일에 한국 빈손채움에서 보내주신 USD 6,000와 8월 28일에 미주 빈손채움과 10월 6일에 한국 빈손채움에서 보내주신 총USD 30,000을 인도 YGL Food & Trading Pvt. Ltd. 회사의 GBM Networks 공장에서 총 2,500박스(총 25,000봉지)를 생산하여 북 비하르 지역의 홍수 피해 재난 지역에 표(26p 참고)와 같이 배분하였습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비하르 주에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가난한 마을과 학교 어린이와 여성과 노약자들 약 1,500여 명에게 필요한 영양가루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IS 학교



라니폴 마을



마나스 마을



살할리 마을



강하라 마을



홍수 지역 구호



빈손채움 후원

정기 후원

특정 후원 항목과 금액을 정해 매달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정기후원에 참여해 보세요.
미션펀드를 이용한 후원금 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 후원

가장 도움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곳에 일시로 후원해 보세요.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후원

특별헌금 : 특별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헌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1:1 결연 : 식량지원 학교 혹은 MVC를 통해 마을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빈곤퇴치 주일 지키기 :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전후해서 빈곤퇴치 주일로 지킵니다.
무통장 입금계좌(예금주: 빈손채움 송동호) 신한은행 140-014-398508

빈손채움 USA 후원

기부 방법

개인체크 : 받는 사람을 'Binchae Foundation'으로 하여
아래 Binchae USA 오피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은행송금 : Chase Bank, Acct : 929785538 / Routing : 021000021

기타 후원 및 참여 문의

Binchae USA Office
주소 : 249-68 57th AVE. Little Neck NY 11362
전화 : +1 (515) 230-7367
이메일 : binchaespark@gmail.com

후원 및 참여 방법

빈손채움은 가뭄, 질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
우물 만들기, 학교 도서관 개설, 영양파우더 제공 등의
식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 사업을 통해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빈손을 채워주세요.
빈손채움의 후원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흘려 보내주세요.



“빈손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집니다”



Binchae



Tel : 02-2135-6765

홈페이지: www.binchae.org

E-mail: binchaekorea@gmail.com